

보도시점: 2024. 5. 7.(화) 13:00 배포: 2024. 5. 7.(화) 8:30

## 국민권익위, 광역자치단체·교육청 청렴수준 중점 개선 유도

- '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시 광역자치단체·교육청 부패실태 심층분석 추진
- 오늘(7일)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

-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.
-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는 7일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'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관계기관 회의'를 개최했다.
  - ※ 참석대상: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 등 17개 광역자치단체, 서울특별시교육청,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
-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4일 확정된 「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」에 종합청렴도 평가의 한 영역\*인 '부패실태 평가'와는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하여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을 반영한 바 있다.
  - \* 종합청렴도 = 청렴체감도(60%) + 청렴노력도(40%) - 부패실태(10%)
- 올해 추진될 부패실태 심층분석은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청렴수준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,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.
-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“국민권익위는 앞으로

발생할 부패사건의 예방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청렴조사평가과	책임자	과 장	정가영	(044-200-7631)
		담당자	사무관	김혜진	(044-200-7634)

